

研究論文

임진왜란기 일·명 강화교섭의 파탄에 관한 一考察  
- 사명당(松雲大師)·加藤清正 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

김문자\*

I. 들어가며	IV. 서생포회담의 결과
II. 朝日회담의 배경	V. 나오며
III. 서생포회담의 내용	

I. 들어가며

임진·정유재란은 일본이 계획적이고 불법적으로 침략한 전쟁으로, 조선으로서  
는 외세의 침략에 항거한 전면적인 전쟁이며, 조선·일본뿐 아니라 명나라까지 참  
전하여, 명실 공히 동아시아 삼국이 모든 국력을 동원하였던 ‘국제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을 흔히 7년 전쟁이라 하지만, 전쟁 발발 후 약 6년 6개월 78개월 간 전  
개된 내부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가운데 전투기간은 1년 6개월(18개월  
壬辰倭亂 初期 11개월과 丁酉再亂期 7개월)이었고, 나머지 5년 1개월은 사실상의  
‘休戰’ 상태에서 조선과 일본, 일본과 명 사이에서 강화회담이 진행된 ‘外交戰’이  
었다. 이처럼 교섭이 장기간 지속된 배경에는 朝·日과 明·日 삼국 간에 교섭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자들의 계략과 마찰, 권모술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었기 때문  
이다.

이렇게 장기간 강화교섭이 진행되어 왔으나 조선은 외교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일본근세사·한일관계사 전공

못하였다. 이점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는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어 왔으며, 조선측에서는 강화교섭에서 아예 소외된 것으로 연구되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고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던 강화교섭을 조선측이 등한시 하거나 무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전적으로 소외당했다고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小西行長(이하 行長으로 칭함)과 沈惟敬간의 일명강화교섭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본측은 조선에 먼저 강화회담을 제의하였고, 그 후 1594년 사명당과 加藤清正(이하 清正으로 칭함)의 서생포회담 金應瑞와 行長の 함안회담 등이 이루어졌다. 조선은 외교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의 강화교섭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 발발 직후 일본의 교섭요구는 조선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거부하였다. 따라서 일본측은 조선과의 회담제외에 실패하자 명의 沈惟敬을 끌어들여 行長 간에 日明講和交渉을 진행시켰던 것이다.

지금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가 다양화되기는 하였으나 수많은 물적·인적인 피해를 주었던 7년 전쟁을 일으킨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명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5년 남짓 진행되어 왔던 일명교섭의 파탄 배경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다. 이는 삼국간의 미묘한 입장과 사료적인 제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沈惟敬과 行長 간에 진행되어 왔던 교섭에만 치중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 교섭내용을 고찰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行長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朝·日강화교섭 내지는 日·明교섭을 전개하려 했던 움직임, 조선의 강화교섭에 대한 태도의 변화 등등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진왜란기에 진행되어왔던 사명당과 清正 간에 이루어졌던 소위 <서생포회담>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일·명 강화교섭이 파탄되는 과정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清正과 사명당이 진행한 <서생포회담>에 대한 연구는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sup>1)</sup> 최근 사명당 연구회를 중심으로 사명당연구가 활

1) 사명당기념사업회,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지식산업사, 2002); 金榮作, 「松雲大師の加藤清正との外交談判-成果意義」, 『朝鮮義僧將・松雲大師と徳川家康』(明石書店, 2002), 148~193 쪽; 申鶴祥, 『사명당의 생애와 사상』(밀양시민신문사, 1994), 111~181 쪽; 貫井正之, 「義僧兵將・外交僧としての松雲大師の活躍」, 『朝鮮義僧將・松雲大師と徳川家康』(明石書店, 2002), 265~275 쪽; 北島万次, 「壬辰丁酉倭亂と松雲大師」, 『朝鮮義僧將・松雲大師と徳川家康』(明石書店, 2002), 33~38 쪽

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일본과 명 사이에 진행 중이던 강화교섭을 파탄시켰던 서생포회담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이 강화회담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4 차에 걸친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外見上으로는 모두 決裂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생포회담은 沈惟敬-行長간의 회담을 저지시키려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며, 일명강화교섭을 파탄으로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성과를 얻어낸 회담으로서 그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講和交渉은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아, 지금까지 연구자들에게도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서생포회담을 전후로 한 日·明강화교섭의 진행상태를 간략하게 살펴 본 후, 사명당이 淸正의 陣營을 탐방하게 되는 배경을 조선·일본·명 삼국의 국내정세와 관련지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4 차례에 걸친 사명당-淸正간의 교섭 전개 과정과 行長 沈惟敬 金應瑞 行長간에 있었던 강화회담과 관련지어서 5년 1개월 동안 진행되어왔던 일명강화교섭이 파탄될 수밖에 없었던 一面을 고찰하고자 한다.<sup>2)</sup>

## II. 朝日회담의 배경

### 1. 서생포회담 이전의 일명강화교섭의 상황

사명당과 淸正의 강화교섭은 1594년 4월에 시작되었다 여기서 이들의 교섭이 시작되기 전인 1592년부터 1594년 3월까지 일명강화교섭에 대한 전반적인 상

이완범, 「임진왜란의 국제정치학: 일본의 조선 분할요구와 명의 對 조선 종주권 확보의 대립 1592~1596」, 『정신문화연구』, 제25 권 4 호(2002), 121~122 쪽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의 서생포회담과 의미」, 『울산사학』, 제11 호(2004), 57~82 쪽

2) 일명강화교섭의 파탄과정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조선과 가등청정과의 회담을 통해서 이 회담이 결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佐島顯子, 「壬辰倭亂講和の破綻をめぐって」, 『年報朝鮮學』, 4(1994); 김문자, 「慶長元年の日明和議交渉破綻に關する一考察」, 『人間文化研究年報』, 18(1994);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吉川弘文館, 1995), 139~179 쪽

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쟁이 발발한 직후 일본군은 조선측에 ‘假道入明’을 요구하는 회담을 제의하였지만 조선측이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6월에 있었던 대동강 회담마저 결렬되자, 화의교섭의 진행을 중단하고 대동강 남쪽에 병력을 집결시켜 평양성을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9월 평양성 전투에서 명군의 참전을 알게 된 일본군은 명군의 본격적인 개입을 방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그 대책으로 명과의 화의교섭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조선의 강화반대 움직임을 간파하여 명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교섭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결과 1592년 8월 31일에서 9월 1일 사이에 최초의 일명강화교섭이 시작되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沈惟敬과 行長 사이에서 행해진 이 교섭에서 양측은 50일간의 잠정적인 휴전 협정을 맺었고, 일본측은 대동강을 경계로 해서 以東의 땅은 일본에 귀속시키고, 以西는 조선에 귀속시킨다는 안을 제시하였다.<sup>3)</sup> 또한 일본은 封貢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沈惟敬은 이를 명 조정에게 보고하였다.

약정한 50일간의 휴전 기간이 끝나자 行長과 심유경은 다시 만나 강화회담을 재개하였다. 이때 일본측은 冊封使를 일본에 파견해 줄 것을 처음으로 요구하고, 명이 봉공을 허락하면 일본군은 한강 이남으로 철수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그러나 심유경의 대일 강화교섭에 대해 명 조정 내에서 비판이 일어나고, 평양의 일본군이 의주를 향해 진격한다는 정보가 전달되면서 명 조정의 분위기가 급박하게 돌아갔고 대규모의 명군이 조선에 참전하면서 일명강화교섭은 중단되는 듯 했다.<sup>4)</sup>

이듬해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 큰 타격을 입었던 명군은 다시 한성지역에 있는 일본군 진영에 심유경과 周弘謨 등을 파견하여 일본과의 강화를 서둘렀다. 이때 명측은 秀吉이 명 황제에게 사죄하는 글을 바치면 그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한다는 것과 조선의 모든 영토를 반환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측도 일단 부산으로 철군하여 화의를 진행시키고, 일본에 강화사를 보내줄 것

3) 『明史』(朝鮮列傳, 二百八, 外國); 『선조실록』 권30, 25년9월 을축(9)條

4) 이 때 명은 대규모의 원병을 다시 보내는 한편, 심유경을 다시 조선에 보내 강화 협상을 벌였다. 한명기, 「임진왜란기 明·日협상에 관한 연구: 명의 강화집착과 조선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제98집(2002), 243~244쪽.

을 명측에 제시하였다.<sup>5)</sup>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명의 宋應昌은 독단적으로 강화사를 위장시켜 謝用梓와 徐一貫을 일본군 진영에 보내어 일본군의 조속한 철병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때 宋은 秀吉의 항복문서를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sup>6)</sup> 군량과 군수물자의 부족으로 더 이상 한성을 고수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일본군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강화사가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이러한 사실을 일본 본국에 알렸다.<sup>7)</sup> 이윽고 1593년 5월 심유경을 비롯한 명 강화사는 23일에 九州의 名護屋에서 회담을 가졌고 일본측은 소위 7개조의 <大明日本和平條件>을 제시하였다. 대명황녀를 일본의 后妃로 보낼 것, 조선 4도의 일본할양, 감함무역 재개 등이 포함된 조건을 받아든 명 일행은 7월에 부산에 도착하였다.<sup>8)</sup>

한편 秀吉은 명을 상대로 강화교섭을 지시하면서도 6월 29일에 진주성공격을 강행하였다. 강화에만 의지했던 송응창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충격을 받았고, 명 내부에 있었던 강화파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일본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강화파기의 조짐도 보였다. 7월에 小西如安(小西飛)을 비롯한 일본인 35명의 항복 사절은 納款使라는 명목으로 부산을 출발하여 9월에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명측은 秀吉의 降表가 없음을 핑계로 納款使 일행의 북경입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심유경과 행장은 항표를 조작하여 이듬해(1594) 2월에 요동에 있는 小西如安에게 전달하였고, 북경에 입경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서생포회담이 열리기 전까지의 일명강화회담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다. 결국 명의 경우에는 조정 내에서 和戰兩論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강화에 의존하여 조선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던 石星과 송응창이 강화 쪽으로 밀어부치면서 일본측의 납관사를 받아들여 일명강화회담이 막바지에 들어섰던 것이다. 동시에 조선의 반대 움직임을 의식한 명은 조선이 명나라 원정군의 군량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없으므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일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窮餘策으로 수길을 일본 국왕으로 수락하여 일본과 강화를 성립시킨다는 명

5) 『懲愆錄』, 권10, 辰巳錄

6) 『선조실록』 권37, 26년 4월 병술(2)條

7) 『吉見元賴朝鮮日記』, 4월 3일조, 동경대학 사료편찬소소장

8) 『續善隣國記』, 『改訂史籍集覽』 21.

분을 세워 조선을 설득·위협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 하에 명은 조선이 자신들의 지시를 따라 일본과 강화교섭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여겨 이를 추진시키려 했으며, 행장과 심유경 사이의 일명교섭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던 이여송, 유정 등은 교섭의 顛末을 알아보기 위해 조선과 일본과의 교섭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이었다. 결국 이러한 배경 하에 사명당과 청정과의 교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도 명이 납관사의 북경입조를 허락하면서 일명교섭이 급속도로 진전을 보이자 이를 저지하고, 일명교섭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行長 이외의 일본군과 독자적인 강화교섭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명당과 淸正과의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 2. 사명당의 加藤淸正陣營의 탐방 배경

전쟁 발발 직후 일본측이 몇 번의 강화교섭을 조선에 요청한 사실을 제외하고 주로 명을 상대로 교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594년 4월에 시작된 사명당과 淸正의 강화회담은 조선측에서 볼 때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우선 사명당이 청정진영을 탐방하게 되는 배경을 당시 조선측과 명의 사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전술한 것처럼 1593년 12월에 일본의 납관사가 요동에 머물면서 북경입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있자 조선은 계속해서 명에 사절을 파견하여 일본과의 和議를 허락하지 말 것과 강화 반대의 뜻을 宋應昌과 李如松에게 전하였다. 또한 명나라 조정에 사은사 金陞를 보내서 원병과 식량을 구하는 노력을 하였다.<sup>9)</sup>

조선이 이처럼 명에 사절을 급파하여 강화회담 반대 의사를 보인 것은 1593년 7월에 이미 한강을 경계로 하여 조선지역을 남북으로 분할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0)</sup> 이 시기는 심유경이 秀吉과 名護屋에서 조선의 4도를 일본에 할양한다는 내용의 회담이 진행되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에 파견된 謝用梓, 徐一貫 등의 僞裝강화사가 부산에 도착한 것은 7월 15일 경이었으므로 조선측이 일본에서 일어난 강화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심유경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9) 『선조실록』 권46, 26년 12월 을묘(6); 병신(7) 條

10) 『선조실록』 권40, 26년 7월 갑자(6) 條

부터 한강 이북을 경계로 영토를 분할할 것이라는 풍문이 있었으므로 이 사항에 대해 조선측은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1)</sup>

또한 조선측은 同年 11월에 劉綎을 통해 和親·割地·求婚·封王·準貢·龍衣·印信의 7조건이 일명교섭의 핵심내용이라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다.<sup>12)</sup> 이것은 도원수 권율과 집반사 김찬이 입수한 것으로서 名護屋에서 수길이가 제시한 7개조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할지 문제에 있어서는 조선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명당이 청정의 진영에 들어가기 2개월 전인 1594년 2월, 조선 조정에서는 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빈발하였고, 같은 달 2일 접대도감 이덕형이 척총병(척계광)을 통해서 심유경이 4도를 할양하기로 허락했다는 말을 듣고서 이 사실의 진위여부를 송응창에게 확인하려 하였다.<sup>13)</sup> 또한 4일에는 심유경의 조선 분할에 대한 밀약설에 대한 문답과, 6일에는 집반사 金贊의 보고가 있었다 즉 관백이 천조와 혼인하는 것과 한강 이남을 할양받기로 한 것을 石星이 허락했다는 내용을 심유경이 行長에게 전했다는 것이었다.<sup>14)</sup> 다시 말해서 조선 조정 내부에서는 名護屋 회담을 전후로 하여 行長과 심유경 사이에 割地說이 논의 된 것을 알고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영토문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이다.

또한 2월 11일 조선 정부는 심유경이 위작한 秀吉의 항표 등서 초문을 입수하였다. 그 내용 중에 할지로서 화친을 구한다는 말은 없지만 심유경이 이와 관련된 사실을 한사코 숨기고 있어서 그 사정을 헤아릴 수가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sup>15)</sup> 즉

11) 『懲懲錄』, 권13, 辰巳錄. 유성룡은 의병장 정인홍이 유총병(劉綎)을 통해서 일본군이 심유경과 함께 일본에 가서 한강 이북으로 중국 땅을 만들고, 이남으로 왜의 땅을 만들고자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12) 『선조실록』 권44, 26년 11월 신미(21)條

13) 『선조실록』 권48, 27년 2월 신해(2)條

14) 『선조실록』 권48, 27년 2월 을묘(6)條. 이는 유총병이 통사를 통해서 김찬에게 심유경과 행장의 회담내용을 전한 것이다. 즉, 관백(수길)이 하고자 하는 바는 천조와 혼인하는 것과 한강 이남의 땅을 할양받는 일이라는 주장에 심유경이 '땅을 할양받는 일은 石星이 이미 허락하였으므로 일본은 봉공을 받은 다음에 임의대로 하라'는 것이 전달된 것이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 석성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심유경과 행장간의 밀약설에 불과 하였으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의 확인과 그러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할지 문제를 둘러싼 위기 위식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겠다.

15) 『선조실록』 권48, 27년 2월 경신(11)條

조선측은 항표 속에 조선에 대한 4도 할지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할지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sup>16)</sup>

한편 이러한 상황과 함께 조선 국내에서는 飢民과 避役民에 의한 민란이 자주 일어나 고위관료들 사이에 국가 존망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즉 민란은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있었으나 군량지출에 의한 식량부족과 흉작에 의한 기근, 특히 1592년 12월 이후부터 참전한 명군의 식량제공 때문에 식량부족은 한층 심각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으로 민란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1592년 말부터 93년 초기에 들어서는 조직을 만들어서 봉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1594년 정월 충청도 일대에서 일어난 宋儒眞의 난이 바로 그 경우이다. 이들이 서울을 공격한다는 소문과, 경기와 湖西지방에 특히 도적이 횡행한 상태가 계속되었다.<sup>17)</sup> 송유진의 난의 파장은 커서 ‘근래 변란이 있는 뒤로 인심이 동요되기 쉬운 데다가 간혹 閭閻의 무뢰배들이 헛소문을 만들어 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이를 서로 전파하고 있다’고 하여 국내 정세가 한층 불안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1593년 12월에 宋應昌을 대신해서 顧養謙이 경략이 되어서 조선에 있는 모든 명나라 군사를 통솔하게 되었다.<sup>18)</sup> 그는 조선에 남아있는 명 군사들을 전면 철수시키려 했던 자로, 당시 일명강화교섭의 초점이 되었던 일본에의 봉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수길을 일본 국왕으로 임명하고 행장을 타일러서 일본으로 철수시키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조선 국왕에게 명 정부를 상대로 일

16) 유성룡은 항복하는 표문의 진위를 알 수 없으며 또한 항표 내용에도 땅을 떼어 화친을 구한다는 등의 말을 심유경이 숨기고 있고, 조선도 분명하게 들은 바가 없으므로 중국 조정에 이러한 내용을 주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히려 이것을 근거로 이 일이 추진될지도 모른다 하여, 자문 가운데 할양문제와 결혼을 요구한다는 말을 제거하고 결혼을 화친으로 고치는 등 완곡한 표현을 쓸 것을 건의하였다. 따라서 명 조정에서는 적어도 항표문이나 조선측의 주청을 통해서 일본측의 <구혼> <할지> 요구는 알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사실상 심유경과 행장은 이 두 조건 보다 <封貢>문제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던 상황이다. 결국 조선의 陳奏使 허성이 갖고 간 내용에는 구혼과 할지 내용은 없었고, 항표문이 가짜인 것이며 봉공을 청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내용을 언급하는데 그쳤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시언이 포획한 왜적의 초서에 ‘혼인을 요구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고, 따라서 땅을 떼어 준다는 것도 필시 거짓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영토 할지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차 고조되었다고 생각된다. 『선조실록』 권48, 27년 2월 신유(12); 계해(14)條.

17) 『선조실록』 권47, 27년 정월 임진(13), 계사(14)條

18) 『神宗實錄』 권268, 만력 21년 12월 병신條.

본이 봉공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奏請해 줄 것을 강요했던 것이다. 특히 고양검은 산둥·하남 및 大江 이북 지역에 기근이 있어서 인육까지 먹는 사태가 중국내 부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측이 주청사를 통해서 요구했던 請兵과 請糧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고양검은 명 조정내의 和戰 양론 속에서 조선 국왕이 대외강화의 유히를 명 황제에게 청하는 것만이 강화를 조속히 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參將인 胡澤을 조선측에 보내어 강화 촉진을 위한 조선 국왕의 주청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sup>19)</sup>

이상과 같이 조선은 심유경과 行長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割地論’에 대한 의구심, 군량부족과 명군의 철수에 의한 군사력의 부족, 민란에 의한 국내정세의 불안 등의 요소가 작용하여 일명강화회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일본과의 교섭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1594년 2월 21일 清正이 경상좌병사 高彦伯에게 서신을 보내 왔던 것이다.<sup>20)</sup> 청정의 접근에 대하여 行長과 清正의 不和를 인식한 조선은 청정이 조선측에 화친을 요구하는 것이 교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진심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응하려 하였다.<sup>21)</sup>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변사는 ‘왕래하며 계책을 쓰고 회답할 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모두 유충병의 처치에 달려 있으니 도원수로 하여금 십분 비밀을 지켜 상의하여 선처하게 하고, 아울러 여러 장수를 단속하여 군기가 조금이라도 누설되지 않게 하라’고 명하고 있다.<sup>22)</sup> 여기서 사명당이 청정의 진영을 탐방하게 되는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즉, 우선 청정 측에서 먼저 화의를 제의했던 것과 이와 관련해서 ‘명총병 劉縉의 지시에 따라 도원수가 비밀을 지켜 선처하라’고 명했던 점을 봐서 조선측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교섭을 진행시키려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화의교섭 자체에 반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 일본과 교섭이 진행될 경우에는 ‘십분 비밀을 지키고, ‘여러 장수에게 군기가 조금이라도 누설되지 않게 하라’는 전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19) 『선조수정실록』 권28, 27년 5월 무인(1)條

20) 『선조실록』 권48, 27년 2월 경오(21)條

21) 상동.

22) 상동.

따라서 회의 교섭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아무래도 군기가 문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장수들 또는 일반인들과 접촉이 적고,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승려 신분이었던 사명당은 교섭담당자로서 적임자였으며 지금까지 전쟁 중 눈부신 활약을 하였고 인격면에서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야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 본다.<sup>23)</sup>

또한 조선측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일본의 승려들이 강화교섭에 문서 제작과 조선인을 회유하는 檄文 작성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이런 점도 사명당을 강화회담의 담당자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sup>24)</sup> 실제로 일본에서는 외교에 대한 실무를 국내에서나 전쟁 중에서도 승려가 담당하였는데 1차 회담에 사명당이 파견되자 淸正의 側近이었던 喜八(美濃割金大丸)은 “우리나라에서도 큰일을 의논하려면 高僧을 불러서 의논하는데 귀국도 역시 고승을 보내온 것은 이 일을 중요시함이라”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sup>25)</sup>

이처럼 조선에서는 行長과 청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는 점과, 청정이 먼저 서신을 보내 회담을 요구한 것이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다툼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문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형세는 군량이 부족한 상태였고, 명군사도 거의 철수하여 병력면에서도 절박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적군의 형세를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청정의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였게 되었던 것이다.<sup>26)</sup>

즉, 조선측에서는 청정이 먼저 회의를 요청한 것과 군량부족과 명군의 철수로

23) 손승철, 「松雲大師(四溟堂)對日使行的 외교사적 의미」, 『한일관계사 연구』 21 집(2004), 40~41 쪽  
조선과 일본관계에서 조선은 초기부터 외교승들에 의한 양국의 외교현안을 해결해 가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일본외교승의 상대역할로 조선승려들이 조·일외교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례를 미루어 볼 때 사명당이 일본과의 교섭에 적임자로서 선정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24) 北島万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一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発』, そしえて(1982), 43~46 쪽

25) 『奮忠舒難錄』 甲午4월, 淸正營中探情記

26) 『선조실록』 권49, 27년 3월 임오(4)條, 을유(7)條. 당시 일본군의 형세와 관련해서 일본진영을 살펴보고 돌아온 명의 譚馮時는 ‘일본군의 수는 대략 3~4만 명이며, 군량은 일본 본국으로부터 계속 운반하여 많이 쌓아 두고 있고, 집과 방을 정결하게 꾸며 놓고 조선 사람들과 海物을 매매하면서 편안히 잘 살고 있으므로 일본으로 돌아갈리가 없다’고 전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명의 이와 같은 보고 내용과, 일본군이 오래 머물 계획이 크고 귀국할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기간 조선에 주둔할 일본군의 정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살펴 볼 필요성도 있었기에 사명당의 청정 진영 방문을 허가 하였다고 보여진다.

인한 병력 부족의 문제 등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지금까지 화의교섭에 반대했던 입장을 바꾸어서 청정의 교섭제의를 응하게 되었던 것이다.<sup>27)</sup> 여기다가 전술한 것처럼 명 조정내에 강화교섭을 추진하는 강화파들이 ‘조선측에 秀吉에의 책봉을 황제에게 청원하는 사자과건’을 강요했던 상황도 행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淸正을 통해서 日明講和交渉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사명당과 청정과의 회담을 추진하였던 배경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명 조정내에서 강화파는 아니었지만 당시 조선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劉綎은 조선과 일본이 직접 교섭을 할 경우 ‘通倭’의 위험성이 있으나, 자신의 지시하에서 ‘명과 무조건 논의한다’는 전제라면 일본과 조선의 강화회담을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가 작용하여 사명당과 청정의 <서생포회담>이 성사되었던 것이다. 다음은 4 차례에 걸친 회담내용과 관련지어서 일명강화교섭이 결렬되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 III. 서생포회담의 내용

#### 1. 제1차 회담과 5개 조건

1594년 사명당이 淸正의 陣營에 처음 들어간 배경에 대해 신유한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계사년 이후 명나라 장수가 힘써 和議를 주장하여 심유경은 평행장과 의논하기를 수길을 책봉하여 일본 국왕으로 삼고 그 군사를 철수케 하려고 하였고, 劉綎은 청정과의 의사를 통하여, 청정에게 틈을 타서 책봉을 받아 스스로 關白이 되어 수길을 반격하도록 하려한 때문에 특히 송운을 보내어 속마음을 탐색하려고 하였을 것이다(후략).<sup>28)</sup>

27) 『선조실록』 권49, 27년 4월 신유(13)條

28) 『奮忠舒難錄』序.

이 내용을 보면 사명당의 일본 진영 파견 목적은 한마디로 淸正을 일본 관백으로 봉하여 秀吉과 대결시키고, 行長과의 갈등도 증폭시키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4월 15일 淸正을 만난 사명당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독부는…“西生陣의 장수 청정은 대대로 지방관을 지켜온 후예로 그 위에 호걸다운 사람인데 어떻게 관백 같은 凡庸한 사람 아래 매여 있는지, 만약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여기에서 그치고 말았겠느냐”하고 늘상 상관을 위하여 개탄하였을 뿐입니다<sup>29)</sup>

여기서 사명당은 우선 일본측 탐정을 하게 된 일차적인 목적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청정은 미소만 짓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청정을 일본의 관백으로 삼으려는 목적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즉 청정은 같은 해 3월 5일자 劉綎에게 보내는 답서 중에서 “자신은 총량한 사람으로 옛사람이 ‘충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 충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 했다. 자신이 관백의 親兵과 良將을 거느리고 왔으니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으리라는 것을 의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즉 자신과 수길(관백)과의 두터운 관계임을 사명당과의 회답이 있기 전부터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劉綎은 두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려 했다. 이는 兩者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기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간책을 썼던 것이었으나 실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첫번째 강화 협상의 근본적인 목표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그러나 여기서 일명강화교섭의 파탄과정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즉, 청정의 側近인 喜八은 행장이 보낸 納관사 小西如安의 행방과 이들이 요구하는 강화조건이 무엇인지를 조선측에 오히려 물어 왔다. 그때 사명당은 거짓으로 심유경과 행장이 추진하고 있는 강화내용은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자 희팔은 오히려 小西如安이 절충하고 있는 것은 ‘통혼(천자와 결혼하는것)’과 ‘割地’라고 설명하였다. 이 내용은 사실상 조선측의 입장에서 놀랍거나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다고 본다.

29) 『奮忠舒難錄』 甲午4월, 淸正營中探情記

30) 『선조실록』 권50, 27년 4월 경술(2)條

왜냐하면 전술한 것처럼 조선측은 같은 해 2월에 접반사 김찬의 보고를 통해서 ‘천조와 혼인하는 것’과 ‘한강 이남의 땅을 할양받는 것’이 일본측의 목적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sup>31)</sup> 다음날 14일 희팔은 “심유경의 강화 조건”(A)이라면서 5가지 조건을 보여주었다

A. “심유경의 강화 조건” : 1594년 4월 제시	B. “豊臣秀吉의 강화 조건” : 1593년 6월 제시
1. 천자와 혼인을 맺을 것	1. 대명황제의 공주를 일본 국왕의 후비로 보낼 것
2. 조선의 땅을 갈라서 일본에 귀속시킬 것	2. 명일간의 무역을 재개하여 官船과 商船을 왕래하게 함
3. 전과 같이 교린할 것	3. 명일양국의 전권대신이 통교하는 서약을 맺을 것
4. 왕자 한 사람을 일본에 보내어 영주하게 할 것	4. 조선의 4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5. 조선의 대신과 대관을 일본에 볼모로 보낼 것	5.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볼모로 보낼 것
	6. 포로가 된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송환할 것
	7. 조선의 중신이 일본에 영원한 항복을 서약할 것

여기서 주목할 것은 (A)의 5개 조건이 마치 심유경과 행장이 주장하는 강화 조건인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명당에게 전달된 것이다. 사실 이것은 秀吉이 名護屋에서 명 사신에게 제시한 ‘大明日本和平條件(B)’ 강화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7개조 중에서 ① 명·일간의 무역을 재개하여 官船과 商船을 왕래하게 한다는 것과 ② 포로가 된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송환한다는 것만 빠져있다. ②는 이미 서생포에서 회담이 열린 시기에는 왕자가 조선에 돌아갔기 때문에 강화 조건 내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명당은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심·행장의 계책은 결단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대해 청정은 “심유경과 행장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일본의 병사가 다시 바다를 건너 명나라로 행할 것이니 그때가 되면 조선의 백성은 일시에 굶어 죽고 남음이 없을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하고 위협하고 있다.<sup>32)</sup>

31) 『선조실록』 권48, 27년 2월 을묘(6)條

청정측이 제시한 5개 조건에 대해 사명당은 당시 이것이 수길의 강화조건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으며, 어디까지나 심유경과 행장간의 조건인 줄 알았던 것으로 생각된다.<sup>33)</sup> 다시 말해서 사명당측도 심유경과 행장이 꾸미고 있는 강화교섭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청정 또한 자신들의 요구조건의 성사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심유경의 강화조건”이라 칭하면서 조선측의 반응을 살피려 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명당과 청정사이에서 진행되었던 1차 회담에서 청정과 秀吉간의 이간책은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조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행장과 심유경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교섭의 내용을 청정에게 오히려 전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이들의 교섭내용은 불가하다는 것을 청정에게 알리는 동시에 수길이 진행시키려고 하는 일명강화교섭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sup>34)</sup> 다시 말해서 강화 조건이 수길이 제시한 것이든, 행장이 제시한 것이든 5개조 중에서 조선의 4도를 일본에 할양하는 ‘割地’ 문제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점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행장이 추진하고 있는 강화내용이 청정자신을 비롯한 수길의 요구조건과는 상이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것은 정유재란 직전에 청정이 일시적으로 귀국하였을 당시 수길에게 심·행장간의 일명교섭의 전말을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

32) 『奮忠舒難錄』 甲午4월, 清正營中探情記

33)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비밀리에 가려져 있었던 일본 본국(수길의 지사)의 강화조건의 전모를 사명당이 처음으로 알아냈다’고 파악하고 있다 즉 이로서 조선과 명은 일본 본국의 강화조건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심유경과 행장이 추진하고 있던 강화교섭의 조건은 일본 본국의 지사와 다른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조선은 이미 1593년 11월에 수길이 제시한 ‘大明日本和平條件’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강화조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사명당은 당시 이것이 수길의 강화조건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심유경과 행장의 간의 조건인줄 알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선측에서 수길의 강화조건의 전모를 1차 회담에서 처음 알아냈다고 파악한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金榮作, 「松雲大師의加藤清正との外交談判 成果意義」, 『朝鮮義僧將·松雲大師と徳川家康』(明石書店, 2002), 164~165쪽, 김강식, 「임진왜란시기의 서생포회담과 의미」, 『울산사학』, 제11호(2004), 63 쪽

34) 이에 비해 이 회담에서 청정의 관심은 심유경·행장의 강화의 성공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달려 있었다. 이는 사명당이 회담을 마치고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심과 행장이 약속한 일이 성취되느냐 않느냐 등의 기별을 계속 서로 연락하여 소식이 끊이지 않게 했으면 한단고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를 주었다는 점에서 일명강화교섭이 파탄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고 본다.

또한 제1차 사명당·청정의 회담을 마친 후 사명당이 적의 진영을 탐방한 후, 이들이 장기적으로 조선에 주둔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에 대응하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려 했던 점에서도 그 성과가 컸다고 생각된다. 즉 사명당은 회담을 통해서 적세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일본군이 매우 오래도록 주거할 계획이 있고 조금도 바다를 건너갈 형세는 보이지 아니하며 사치스럽고 참람하기 王侯보다 더하니 분통함을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sup>35)</sup> 여기서 사명당은 일본군이 장기간 주둔하면서 당분간 철수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였고, 따라서 이를 물리치기 위한 방편으로 이후에 ‘討賊保民’의 상소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진을 탐방하여 적세를 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갖게 했던 것이다.

한편, 사명당이 청정의 진영에 들어간 사실은 5월 6일 도원수 권윤의 치계에 의해서 조정에 알려졌다.<sup>36)</sup> 보고 내용의 대부분은 清正이 小西如安의 소재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과 심유경의 강화에 대한 진행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권윤의 보고 이후 조선측의 관계기사에는 사명당·청정과의 강화교섭에 대한 언급이 그다지 나오지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사명당이 두 번째로 청정의 진영을 탐방하고 나왔을 때 조선 조정은 사명당의 움직임에 민감함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록』에도 그의 기사가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로 비추어보아 제1차 회담에 대한 사명당의 역할을 그리 높게 평가한 것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사명당이 알아 온 청정의 5개조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으로, 오히려 조선 조정은 앞으로의 그의 활동에 주목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사명당의 청정과의 회담내용이 5월 중순경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瑣尾錄』에 나타난다.<sup>37)</sup>

35) 『奮忠舒難錄』 甲午4월, 清正營中探情記 사명당은 “적세를 관찰하니 城基는 견고하고 호령은 날로 새로우며 군수품도 풍부하여 생활상태가 넉넉하였고, 혹은 고층 누각을 지으며 혹은 큰 집을 짓고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명당은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군량과 병사 확보를 골자로 한 疏를 올려 국방 강화에 주력할 것을 역설한 것이다.

36) 『선조실록』 권51, 27년 5월 계미(6)條

37) 吳希文 著, 李民樹 譯, 『瑣尾錄』 第3, 甲午 5월 20일

趙正郎景綏에게서 들으니, 적의 酋長平行長이 다섯 가지 일로 중국 조정과 강  
화하려 했는데 1. 조선의 네 도를 쪼개줄 것, 2. 중국 공주를 내려 보낼 것, 3.  
조선 길을 통해서 조공하도록 열어줄 것, 4.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일본에 인  
질로 보낼 것, 5. 일본 관백을 봉해서 왕으로 삼을 것 등인데, 이는 모두 쫓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것을 중국 조정에 요구해서 응하는지 어떤지를 보아서,  
만일 응하지 않으면 마땅히 군사 12부를 내어 바로 중국으로 향하겠다고 하  
니 분통함이 어찌 다 말하랴. 중국사신이 나오는데 혹은 강화하거나 혹은 적  
의 형세와 우리 나라의 군사를 조련하는 일과 양식의 사정을 살핀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하겠다. 또 들으니 僧將軍 惟政은 自號를 金剛山大禪師松  
雲 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중에 바로 賊將 청정의 진중으로 들어갔더니 청정  
은 후의로 우대해 주어서 10여일을 머무르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청정이 행장과 공을 다투느라고 화목하지 못하여, 수길은 행장의 거짓  
말을 듣고 청정의 처자를 죽였기 때문에 청정이 크게 노하여 우리와 합세하여  
거꾸로 관백을 치려고 도모한다 하니 만일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간사한 말을 반드시 믿을 수가 없다. 하물며 수길이 큰  
군사를 청정의 손에 쥐어 주어 그 탄 타국나라에 가서 적과 싸우게 했는데 먼  
저, 처자를 죽이다니 반드시 그럴 이치가 없다. 나는 이를 믿지 않는다(후략).

17일 청정의 지역에서 나온 사명당의 소식은 5월 6일 조선 정부에 전달된다.  
20일경 『瑣尾錄』에 사명당의 회담소식이 전해진 것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일명강  
화교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빠르게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췌미  
록에도 ‘할지 문제’와 ‘관백으로 봉하는 문제’ 등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 여  
기에서 보여지는 5가지 조건은 청정이 “심유경의 강화조건”이라고 사명당에게 제  
시한 내용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췌미록의 저자 오희문도 5가지 조건이 어디  
까지나 行長이 제시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장과 청정사  
이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은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제2차 회담과 교린

사명당의 2번째의 회담은 1594년 7월 10일 수행원 37명과 함께 서생포에 도착

하면서 시작되었다. 2차 회담은 조선측의 입장에서 보면 1차 회견의 연장선상으로 4번에 걸친 회담 가운데서 가장 성과가 컸으며, 일본측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회담이라 할 수 있겠다.

즉, 喜八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한 대사 일행을 행장과 내통해서 청정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으며, 가을 추수를 무사히 거두기 위한 지연작전으로서 강화에 임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사명당은 행장과 강화할 이유가 없고 크고 작은 일을 명나라 장수와 의논하기 때문에 시일이 지연되었다고 설득하였다.<sup>38)</sup> 이윽고 사명당은 청정과 만나 강화회담에 들어갔다.

이때 청정은 1차 회담 때 요구했던 5개 조건의 성사 여부를 물어 왔으며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회담을 진행하려 했다. 즉, 명나라에서도 일본에 인질을 파견할 것과 명나라가 어떤 물건으로 일본과 통상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사명당은 5조항의 일은 전날 이미 글로서 전달하였고, 2가지 추가 조항은 조선이 마음대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의 독부가 처리할 내용이라 하여 답을 피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정이 5개 조건을 ‘관백의 명령이니 성사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점이다. 다시 말해서 1차 회담 때에는 5개 조건이 심유경행장의 강화 내용인 것처럼 말하면서 이 내용의 성사 여부를 탐문했던 것과 달리, 또 다시금 사명당을 통해 이 조건이 성사될 수 없음을 알자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관백의 요구사항임을 알려서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서 사명당은 지금까지 청정이 요구했던 5개조 강화 내용이 수길의 지시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심유경-행장과 수길 청정의 두 노선으로 다른 내용의 일명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을

38) 『奮忠舒難錄』 甲午7월, 再入清正營中探情記 조선측은 일본과 회담을 진행할 경우에 명측이 ‘通倭’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명을 의식하고 명의 간섭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명군이 조선에 참전한 후부터는 조선이 일본과 회담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통제를 받았고 회담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조선측은 일본과 미묘한 외교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답을 요하는 문제나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는 사명당처럼 ‘조선의 크고 작은 것 없이 모두 명나라에 미루고 있다’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같이 주국과의 약속에 따라야 함으로 감히 자단할 수 없다’, ‘명에 예속되어 있다’, ‘대명의 명이 아니면 결정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외교권 문제에 있어서 실리적으로는 명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외교문제에 있어서 명의 역할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명당은 서생포회담에서 조선과 명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면서 회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명확하게 확인하여 여기에 대응하는 자세로 회답에 응한 것이다.

즉 사명당은 회답을 진행하면서 5개 조건을 완강하게 반대하면 청정이 지속적으로 회답에 임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교린의 조건만 수용하여 회답을 지속시키려 했다. 그러자 청정은 교린의 전제조건으로서 4道 중 2道를 주고, 왕자를 볼모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조건이 불가함을 전하면서 사명당은 심과 行長의 강화교섭은 수길을 책봉하고 조공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천자가 허락하지 않아서 명나라 독부가 청정과 힘을 합하여 성공 시키려고 자신들을 보냈다고 설명하였다.<sup>39)</sup> 다시 말해서 청정에게 심과 행장이 진행하고 있는 강화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한편으로는 청정을 도와서 일본 국왕으로 삼고 朝覲賞功의 禮를 중국의 제도에 따라 일본·조선·대명이 다 같이 화합하여 영원히 변치 말자는 취지를 전하였다. 이것은 사명당이 일본 진영에 파견된 근본적인 목적이었으므로 이를 실천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2차 회답에서 청정은 행장과 심이 교섭하는 이유를 행장이 평양에서 패전한 뒤 그 죄를 면하려고 명나라와 通和를 명분삼아 후퇴하였고, 죄를 입을까 두려워서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라 했다. 또한 청정은 5개 조건이 성사되기 힘든 상황을 파악해서인지 내심 교린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추었다. 즉, 청정은 “본토를 떠난지 오래되어 매번 돌아가고 싶으나 군사를 일으킨 지 3년이 되었는데 무슨 일을 이루었다고 바다를 건너겠는가” 하면서 조선측에서 교린을 하려면 속히 결의하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청정이 조선에서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라 본다.

이와 관련해서 희팔은 통사에게 “관백이 만약 왕자를 요구하면 교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니 다른 사람의 아들을 거짓으로 왕자라 하여 들여보내도록” 제안하고 있다.<sup>40)</sup> 다시 말해서 청정측은 조선이 왕자를 인질로 데려오지 않을 것을 간파하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교린의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교린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좌중의 모든 왜인이 교린의 의논을 듣고 모두 기뻐하는 빛이 있었다고 한 점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귀국하고 싶어 하는 병사들의 厭戰분위기를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인질을 전

39) 상동.

40) 상동.

제로 한 교린'을 고집하면서 교린 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이는 國內戰의 戰爭決着方式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sup>41)</sup>

한편 사명당이 두 번째로 청정의 진영에 들어가서 강화회담을 했다는 소식은 9월 9일 조선 조정에 알려졌다. 7월 16일에 청정 진영을 나온 지 거의 60일이 지난 일이었지만 이때 조정에서는 사명당 및 동행한 인물을 속히 상경시키고 9월 12, 15, 22일 3차례에 걸쳐서 2차 회담 내용을 전부 보고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예를 들어 청정의 군사가 1만 8천명에 이르며, 적세가 급박한데 조선이 먼저 단절하고 회보하지 않으면 그 폐해가 심할 것 같으므로 청정이 요구하는 왕자의 답신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 까지도 논의되었다.

결국 2차 회담을 통해서 조선측은 청정과 수길의 사이를 離間시키려 했던 목적을 다시 한 번 재시도 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일명강화교섭과 관련해서는 1차 회담에서 제시된 5개조는 수길이 요구한 것이며, 심 행장의 강화교섭내용이 수길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일명강화교섭>은 진행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고, 행장과 청정의 불화 원인, 적군의 戰況, 편법에 의한 교린 정책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은 2차 회담의 큰 성과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조선측에서는 사명당의 적탐활동을 통해서 일본 진영의 동태가 명확하게 파악되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적을 토벌하고 백성을 보전할 방법이 강구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사명당의 '討賊保民'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군사전략과 방비책을 세우는데 현실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내용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2차 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사명당에 대해 조정에서는 “그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돌보지 않고 범굴에 들어간 공로를 갚지 않을 수 없으니 僉知의 實職을 제수하여 후인들을 권장 하소서”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차 때보다는 적극적으로 그의 역할을 평가하였다.<sup>42)</sup>

41) 『선조실록』 권55, 9월 정유(22)條, 貫井正之, 「義僧兵將・外交僧としての松雲大師の活躍」, 『朝鮮義僧將・松雲大師と徳川家康』(明石書店, 2002), 274 쪽

42) 『선조실록』 권57, 27년 11월 을해(1)條

## 3. 제3차 회담과 인질과견

1594년 11월 6일 한성을 떠난 사명당 일행은 청정이 요구한 조선왕자의 답서와 매·호피 등을 가지고 서생포로 향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청정이 행장과는 달리 강포하여 의외의 변이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 3번째로 청정 진영에 사명당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12월 23일 희팔은 조선측이 경상우총병 김응서와 행장이 화의를 성립(함안회담)시킨 후 자신들을 회유하였고, 사명당 일행이 병사의 출동을 늦추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불신감을 표시하면서 이들의 만남을 거부하였다.<sup>43)</sup>

여기서 희팔이 말하고 있는 김응서와 행장간의 회담이란, 1594년 11월 하순에 행장이 먼저 조선측에 교섭을 제의한 것을 말한다. 즉 명을 상대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봉공을 허락 받을 수 있도록 조선 조정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sup>44)</sup> 다시 말해서 행장은 북경에 가 있는 남관사 小西如安 일행이 명으로부터 봉공을 받기 위한 최종단계에 있으므로 조선측이 협조해 주어서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강화회담을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고양겸 등이 조선 국왕에게 명 조정에 봉공을 허락하는 주청을 강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행장도 조선의 협조를 통해서 서둘러서 봉공을 받으려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응서를 비롯한 조선측은 일본군의 무조건 철병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일본군을 비난하는 대화를 나누다가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사명당이 세 번째로 청정 진영을 탐방한 시기는 행장과 심유경이 진행해 온 교섭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상황으로, 그 귀추에 주목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청정은 오히려 사명당이 행장 일행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불신감을 표시하면서 이들과의 접촉을 기피하였던 때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사명당은 행장이 김응서에게 회견을 요구한 소식은 들었지만 강화가 성립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하였고, 자신은 서울에서 40일간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었다고 설득하면서 청정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또한 중국 조정에서 책봉하였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자세한 상태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일행방문을 거절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즉,

43) 『奮忠舒難錄』 甲午 12월, 再入清正營中探情記

44) 趙慶南, 『亂中雜錄』 3, 甲午, 11月條

청정은 1594년 12월에 명 황제가 小西飛를 만나 秀吉에게 책봉이 내렸다고 판단하여 사명당과의 면담을 거부한 것이었고, 이에 대해 사명당은 이러한 상황은 알지 못하니 어쨌든 회답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sup>45)</sup>

그런데 여기서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사명당 일행이 세번째로 청정의 진영에 들어간 시기는 명 황제가 수길의 항표는 받았으나 수길의 책봉을 포함한 구체적인 절차는 행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조선에 전달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었고, 3차 회답이 열렸을 시기에 수길을 정식으로 책봉한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본다. 다만, ‘중국 조정에서 책봉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심과 행장의 강화가 수길의 책봉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명 조정에서 이것을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고 본다. 즉, 심유경과 행장사이에 행해졌던 강화교섭이 타결되었다고 믿은 청정은 이에 대한 불쾌감을 사명당에게 표시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사명당은 전술한 것처럼 자신은 모르는 사실이라 주장하면서 청정과 만나기를 거듭 요청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청정측은 “천조가 책봉을 허락한 것은 비록 아름다우나, 관백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전에 제시한 5개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성사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다.<sup>46)</sup> 이것은 심과 행장이 내세운 강화조건이 관백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며, 자신들이 제시한 5개 조서는 관백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청정측은 새롭게 강화협상의 조건으로 ‘조선왕자와 大臣의 來日 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청정은 자신의 아들을 조선에 보내 인질로 삼아도 좋다고까지 제의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2차 회답 때 교린을 요망하면서 조선 왕자를 인질로 데려오는 것이 힘들면, 다른 사람의 아들을 거짓으로 왕자라 하여 들여보내도록 제안한 것보다 더 저자세로 조선과의 교린 내지는 강화를 서둘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3번째 회답에서 사명당과 청정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청정이 대사를 만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조선 조정은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조선측이 서둘러서 회답하지 못한 사정을 전할 것과 제장들에게 군사를 정돈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즉, 청정과의 교섭이 막혀 서신을 통

45) 『兩朝平壤錄』 권4, (동경대학동양문화연구소 소장, 萬曆 22, 12월 20일

46) 상동.

할 수 없게 되고, 청정이 사명당도 만나지 않는다고 하자 조선측에서는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방비를 세워야 하다는 대책을 세웠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乙未上疏言疏>라고 하는 자주국방과 국가 중흥에 중요한 장기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화제를 바꾸어서 3차 회담이 끝난 후 청정은 일명강화회담을 진행하는데 방해자로 지목되어 1596년 4월 일본에 소환되어 근신처분을 받았으나, 재침이 시작된 97년 1월에 다시 서생포로 왔다.<sup>47)</sup> 행장과 심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일명강화교섭안, 즉 수길을 일본 국왕으로 인정하고 일본에 책봉사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1594년 12월이고, 전술한 것처럼 청정이 일명강화회담을 진행하는데 방해자로 지목되어 일본에 소환되어 근신처분을 받은 것은 1596년 4월이었다. 다시 말해서 1년 4개월 동안 청정은 조선에 주둔하면서 명 책봉사의 來日과정과 명이 일본을 상대로 요구하였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청정은 명 조정에서 수길을 일본 국왕으로 임명한다는 절차가 끝난 후인 1595년 3월에 명국의 經略孫鏞에게 보낸 답서 중에서 “行長所三事, 非關白之命, 其中封王之事, 日本關白豈要之”라 하고 있다.<sup>48)</sup>

여기서 ‘行長所三事’라는 것은 행장 측이 명과 약속한 것으로서 ① 명은 일본에 貢市를 허락하지 않는 것, ② 일본과 조선이 和平할 것, ③ 조선 남부 지역에 있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책봉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수길에게 책봉의식을 거행한다는 것을 말한다.<sup>49)</sup> 즉, 행장이 명 조정을 상대로 서약한 三事에 대해 청정은 명확히 인식하였고, ‘封王’은 수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청정은 이미 1595년 단계에서 행장의 일명강화교섭의 조건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으며, 귀국 후 이를 수길에게 폭로하여 강화회담의 내막이 풍신

47) 上垣外憲一, 『「鎖國」の比較文明論-東アジアからの比較視點』(講談社選書メチエ, 1994), 102쪽.

48) 『선조수정실록』 권29, 28년 3월

49) 『兩朝平壤錄』 권4.(동경대학동양문화연구소 소장), 萬曆 22, 12월 14일. 행장은 ‘三事’와 관련하여 우선 貢市 불허 문제는 책봉이 결정된 후 명에 대해 사례를 한 후, 명을 왕래 하는 과정 중에서 서서히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하였고, 조선과의 화평 문제는 공시 문제보다 훨씬 용이하게 해결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여진다. 당 문제는 일본군의 조선에서의 완전 철수였는데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타결하게 위해서 행장은 일본으로 귀국하여 수길에게 일본군의 부분적인 철수를 요청하였다. 이때 행장은 책봉사가 요구했던 내용을 전부 알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책봉사가 수길을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기 위해서 일본에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수길이 熟知하고 있었다고 본다. 김문자, 『慶長元年の日明和議交渉破綻に關する一考察』, 68쪽.

수길에게 전달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명강화교섭이 결렬되는데 일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명측에서는 일본군의 철수를 거듭 주장하면서 특히 청정을 <冊封反對派>로 지목하여서 그가 조선에 잔류해 있으면 명 책봉사가 일본으로 건너가기는커녕, 부산에 있는 일본진영에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선에서의 사정을 보고하고 타결하기 위해 행장은 1595년 4월에 일본으로 귀국하여 수길로부터 <大明朝鮮과 日本和平之條目>이라는 교섭안을 가지고 6월 중순경에 조선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수길의 명에 따라 부산에 남아 있는 다수의 일본군이 철수하였다.<sup>50)</sup> 이때까지도 청정은 조선에 남아 있으면서 명 책봉사들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해 1596년 4월에 명 책봉사 중 正使가 일본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부산 진영에서 單身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sup>51)</sup> 이에 당황한 행장과 심유경은 책봉 일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청정의 일본철수를 요구하는 명측의 의견을 수길에게 전달하고, 따라서 청정은 일명강화회담 진행의 방해자로 지목되어 1596년 4월 경에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정의 귀국이 책봉정사의 탈출 사건과 연루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수길의 명의 책봉사가 조속히 來日할 것을 전제로 해서 청정을 소환한 것으로, 수길은 명이 자신을 <일본 국왕>으로 임명하는 사절이라는 것을 事前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으로 귀환한 청정 역시, 지금까지 사명당과의 3 차례에 걸친 회담과 명이 책봉사를 임명해서 일본의 부산 진영까지 오는데 걸린 1년 4개월간의 기간 동안 일명강화회담의 전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길에게 ‘三事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강화회담의 사정을 폭로하여 강화회담이 결렬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50) 『江雲隨筆』 文祿 4년 5월 22일자(동경대학교 사료편찬소 소장).

51) 佐島顯子, 「日明講和交渉における朝鮮撤退問題 冊封正使の脱出をめぐる」, 中村質 編 『鎖國과 國際關係』(吉川弘文館 1997), 107~131 쪽

#### IV. 서생포회담의 결과

1597년 1월에 군사를 이끌고 다시 조선에 건너 온 청정은 사명당과 黃護軍 黃赫(順和君의 장인)과의 회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응한 사명당은 3월 18일에 청정과 회담하였고, 이튿날 왜승인 淸韓과도 만나서 문답하면서 賊勢를 파악하였던 것이다. 당시 사명당과 청정과의 회담 내용은 3월 30일자 도원수 권율의 장계에 자세히 나와 있다.

우선 4번째 청정과의 회담은 이미 일명강화교섭이 결렬된 상태였으므로, 본고에서 고찰하려는 일명강화교섭의 파탄 과정을 살펴보는 문제와는 동떨어진 감이 있다. 그러나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강화회담 및 파경원인에 대한 격론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3국을 둘러싼 강화회담의 본질과 조선의 입장 조선과 대마도와의 관계 등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4차 회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5년 전 서울에서 심유경과 행장이 화평을 약속할 때 왕자 형제를 돌려보내면 국왕이 일본에 건너가서 사례한다 하였으므로 이것도 또한 태합에게 알리고 조선 8도를 잘라서 일본에 붙인다고 한 것도 또한 태합에게 알렸으므로 왜병이 모두 서울에서 남으로 내려가서 이 해안에 있으면서 기다린 것이다. 또 왕자를 돌려보내고 태합도 또한 5년 전부터 거년 8월까지 싸움을 그치고 기다렸다. 그런데 국왕은 바다를 건너가 사례하지 아니하고 또 땅을 나누어 일본에 붙여 주지 아니하고 또 왕자 형제 중에 한사람도 바다를 건너보내지 아니하고 다만 직품이 낮은 신하를 보내서 사례한 것 같이 하였으므로 태합이 대노하여 사자를 대하지 아니하였다.<sup>52)</sup>

여기서 청정은 지금까지의 강화교섭의 경위를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조선 국왕의 來日과 왕자의 인질거부, 조선남부의 할지 거부 등이 문제가 되어 일명강화회담이 실패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위의 내용에서 청정은 수길을 일본 국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수길이 이에 격분하여 강화회담을 파기하였다는 기존의 연구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단, 여기서는 명측이 계속해서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

52) 『선조실록』 권86, 30년 3월 경산(30)條

하므로 이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논리로서 ‘조선왕자의 來日不參’을 이유로 재침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청정은 강화회담이 파기된 사태에 대해서 조선 국왕이 속인 것인지, 아니면 명나라 또는 심·행장이 사주한 것인지 대답을 듣고자 했다. 이에 대해 사명당은 명나라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이는 단지 심과 행장이 약속한 것으로 조선측에서는 감히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왕자의 來日’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결국 청정은 계속해서 왕자파견을 명목으로 조선측이 먼저 사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청정의 요구에 대해 사명당은 ‘심유경과 행장에게 속아서 4년 동안 군사를 일으켜 아무런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번에 다시 만회하려는 무리한 요구’라 보고, 이러한 요구는 오히려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적의 대병이 장차 재침해 올 때까지 일부러 트집을 잡으려는 흉한 속셈’이라고 판단하였다.<sup>53)</sup> 이러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명당은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일본의 대군이 다시 쳐들어오기 전에 결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회담 중에 청정은 ‘대마도 사람은 조선의 쌀과 곡식과 재물을 탐내어서 일본의 사신이라고 사칭한 것이다. 일본은 통일이 되지 못하여 먼 섬의 사람이 만든 피이므로 전혀 알지 못하였다. 지금은 태합전하가 60여주를 통일하고 있으므로 대마도 사람이 피를 부린다는 것을 만일 태합이 듣는다면 반드시 베어 죽일 것이다’고 한 점은 흥미롭다.<sup>54)</sup> 즉, 청정은 지금까지 대마도측 사람들이 ‘일본의 사신’이라고 사칭하면서 자행해왔던 외교형태를 꿰뚫어 보고 앞으로 이러한 방법은 통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로서 1590년의 통신사 파견도 대마도와 행장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본다.

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상경한 사명당은 지금 조선의 상황은 결전을 하든 안하든 간에 위태로운 상태이므로 먼저 싸움을 하여 결판 짓는 편이 낫겠다고 주장하였다. 사명당의 이러한 주장은 첫째로 현재 일본군의 수가 1만여 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과,<sup>55)</sup> 둘째로는 청정의 진영에 있는 군사 중 조선인 군사가 많다고 파악

53) 상동.

54) 상동.

55) 『선조실록』 권87, 30년 4월 계유(13)條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적의 대군이 아직까지 대다수 건너오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바다를 건너와 진군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지는 것이었고, 청정의 진영에 15~16 세 되는 나이 젊고 정예한 자는 조선 사람으로 군세가 종전에 온 적과는 다르다는 것이었다.<sup>56)</sup> 따라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적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사명당은 기회를 놓쳐 두어 달 지연시키면 적의 대군이 들어와 조선의 형세를 와해시킬 것이며, 적병의 움직임이 여름이 아니면 가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속히 국가를 튼튼히 하고 외적을 방어할 계획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동시에 사명당은 朝野의 상하는 아무 대책도 없이 강화가 행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가 하면, 한번 邊報가 생기면 피해 달아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변보가 없으면 마음을 놓은 채 걱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과 같은 사람을 흉적 속에 왕래만 시킨다면 수많은 설화를 해보았자 수모만 더할 뿐 事機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고 탄식하였다.<sup>57)</sup>

결국 사명당은 지금 조선의 형세는 급박한 상황으로 수개월 내로 적의 대병이 쳐들어 올 것이므로 강화를 바라거나, 명나라 군사를 기다리면서 시일만 소비하지 말고, 왜의 대군이 건너오기 전에 舟師로 바다를 차단하고 육로로 적의 소굴을 엄습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어책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사명당의 이러한 탁견은 4차례에 걸쳐서 적진을 왕래하면서 일본군의 재침을 예리하게 예견하고 ‘적의 형세’와 ‘우리나라의 兵勢’에 입각하여서 국가의 안위를 구하려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이 가능했던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식견과 활약에 의해 임진왜란이 끝난 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외교담판에 등용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끝으로 사명당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56) 『선조실록』 권87, 30년 4월 신미(11)條 이와 관련해서 1597년 10월에 일본진영에서 도망쳐온 金應礪는 ‘우리나라에서 서로 잡혀간 사람 중 壯丁은 군병이 되어 이번에 나오게 되었는데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 중 3분의 1은 도망치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죽일까 두려워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선조실록』 권93, 30년 10월 정축(20)條 김문자 『16~17세기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피로인 귀환』, 『상명사학』, 8·9합집(2003), 182쪽

57) 『선조실록』 권87, 30년 4월 계유(13)條

그가 말재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적의 소굴에 들여보내어 賊情을 정탐하여 오게 하였는데, 이번에 갔다 와서는 이내 적을 토벌해야 하는 의리를 개진한 것은 흥적의 정상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인 것이다. 난리를 겪은 이래 廟堂의 여러 신하들이 한결같이 위축되어 더러는 강화의 의논을 빌어 기미책을 피하고 더러는 훈련을 핑계하여 뒷날 도모하자고 하는 등 구차스레 그럭저럭하는 사이에 6년이 벌써 지났는데, 한 사람도 의리에 의거하여 진취하려는 계획을 바쳤던 자는 없었다. 유정의 상소는 말이 조리가 있고 의리가 발라서 당시의 병통을 적중시켰으니 육식자들이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sup>58)</sup>

위의 내용은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사명당에 관해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명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그대로 이어져서 사명당의 사후 100년이 지난 영조대에 와서 그 평가가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sup>59)</sup>

결국 사명당과 청정간의 강화교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지만, 이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일명강화회담의 저지라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진다. 4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풍신수길의 의도를 확인하였고, 행장과 심유경간에 진행되고 있었던 강화조건이 조선과 명에 알려져 강화교섭이 총체적으로 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淸正의 폭로에 의해서 강화회담의 내막이 수길에게 전달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명강화교섭이 결렬되는데 일조하였던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명 조정과 行長 등이 일본 국왕 책봉을 행하려 한 것에 대해서 秀吉이 격노하여 일명강화교섭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통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 V. 나오며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중 사명당과 淸正 간에 이루어진 4차례의 강화회담에 대

58) 상동.

59) 손승철, 「松雲大師(四溟堂)對日使行的 외교사적 의미」, 『한일관계사 연구』 21 집(2004), 58 쪽

해서 전체적인 배경과 회담별로 그 배경·경과·내용·성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명강화교섭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을 사명당과 청정간의 교섭과정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명 조정과 行長 등이 일본 국왕 책봉을 행하려 한 것에 대해서 秀吉이 격노하여 일명강화교섭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통설에 대한 재검토를 행하였다.

그 결과 조선측은 기본적으로 화의교섭 자체에 반대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먼저 교섭을 요청한 청정의 강화협상은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심유경과 行長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되는 ‘割地論’에 대한 의구심, 군량부족과 명군의 철수에 의한 군사력의 부족, 민란에 의한 국내정세의 불안 등의 요소로 조일교섭에 응하게 되었던 것이다.

명 조정내에 강화교섭을 추진하는 강화파들이 ‘조선측에 秀吉에의 책봉을 황제에게 청원하는 사자파견’을 강요했던 상황도 행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淸正을 통해서 日明講和交渉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賊情을 탐정하기 위해 사명당을 적진에 파견한 배경이 되었다. 특히 승려 신분이었던 사명당이 교섭의 전면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일반인 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드물고, 군사 기밀도 발설될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과 임란 중에서 두드러진 활약이 인정되어 강화협상을 담당할 적임자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4차례에 걸친 사명당과 청정과의 강화협상은 외교 담판을 통해서 수길-청정, 청정-행장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으나, 기대만큼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日明講和交渉의 진행과정과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일명간 강화회담의 허실을 알리고 저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결국 사명당과 청정간의 강화교섭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지만, 이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일명강화회담의 저지라는 점에서는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진다. 4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풍신수길의 의도를 확인하였고, 행장과 심유경간에 진행되고 있었던 강화조건이 조선과 명에 알려져 강화교섭이 총체적으로 결렬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일본에서도 淸正의 폭로에 의해서 강화회담의 내막이 풍신수길에게 전달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명강화교섭이 파탄하는데 일조하였던 것이다.

또한 조선측에서는 4차례의 회담을 통해서 일본군의 數·軍紀·군수물자의 상

황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甲午討賊保民’과 ‘乙未上疏言疏’이라는 자주국방과 국가 중흥에 중요한 장기대책을 세우는데 사명당의 적담 보고가 밑거름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이후 사명당은 전쟁 중의 눈부신 활약과 일본측으로부터 신뢰를 받아 임진란이 끝난 1604년에 외교회담의 책임자로서 조·일 강화회담을 담당하여 조선 정부와 에도막부 간에 정식 국교가 맺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宣祖實錄』, 『明史』, 『吉見元賴朝鮮日記』, 『改訂史籍集覽』, 『懲愆錄』, 『神宗實錄』, 『奮忠舒難錄』, 『瑣尾錄』, 『亂中雜錄』, 『兩朝平壤錄』, 『江雲隨筆』.

金榮作, 「松雲大師の加藤清正との外交談判-成果意義」, 『朝鮮義僧將・松雲大師と徳川家康』, 明石書店, 2002.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의 서생포회담과 의미」, 『울산사학』 제11호, 2004.

김문자, 「16~17세기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피로인 귀환」, 『상명사학』 8·9 합집, 2003.

김문자, 「慶長元年の日明和議交渉破綻に關する一考察」, 『人間文化研究年報』 18, 1994.

손승철, 「松雲大師(四溟堂)對日使行의 외교사적 의미」, 『한일관계사 연구』 21 집, 2004.

申鶴祥, 『사명당의 생애와 사상』, 밀양: 밀양시민신문사, 1994.

이완범, 「임진왜란의 국제정치학: 일본의 조선 분할요구와 명의 對조선 중주권 확보의 대립 1592~1596」, 『정신문화연구』 제25권 4호, 2002.

한명기, 「임진왜란기 明·日협상에 관한 연구: 명의 강화집착과 조선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국사 관논총』 제98 집, 2002.

貫井正之, 「義僧兵將・外交僧としての松雲大師の活躍」, 『朝鮮義僧將・松雲大師と徳川家康』, 明石書店, 2002.

北島万次, 「壬辰丁酉倭亂と松雲大師」, 『朝鮮義僧將・松雲大師と徳川家康』, 明石書店, 2002.

北島万次, 『朝鮮日々記・高麗日記一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歴史的告発』, そしえて 1982.

北島万次, 『豊臣秀吉の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5.

上垣外憲一, 『『鎖國』の比較文明論-東アジアからの比較視點』, 講談社選書メチエ, 1994.

佐島顯子, 「日明講和交渉における朝鮮撤退問題 冊封正使の脱出をめぐる」, 中村質 編 『鎖國과 國際關係』, 吉川弘文館, 1997.

佐島顯子, 「壬辰倭亂講和の破綻をめぐる」, 『年報朝鮮學』 4, 1994.

● 투고일 : 2005. 4. 20.

● 심사완료일 : 2005. 8. 26.

● 주제어(keyword) : 임진왜란(the Imjin War), 일명강화교섭(the Peace Treaty between Japan and the Moug Dynasty), 사명당(Samyoungdang), 加藤清正(Kadaugchungjung), 小西行長(Soseohangjan), 沈惟敬(Shimyookyung), 豊臣秀吉(Poungshinsogil), 교린(The Rel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할지(The Land Parcels)